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음 1월 26일) 제20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라감영로 특성화 본격화

전주시, 완산교까지 500m 구간  
장애 유무·연령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도록 설계된 보행로 설치

전주시가 전라감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도로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꾼다.  
시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복원재창조 공사가 추진중인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 안전한 보행로 개설과 전기 지중화, 오수관로 매설 등을 실시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쇠퇴한 전주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국비 외역원 등 총 사업비 182억원이 투입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주변 전통식당과 고미술, 한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보행자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풍남문~전라감영 종패지관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 문화의 거리인 전라감영 테마거리와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전통·역사관광 축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라감영 테마거리의 경우 보물 제

308호로 지정된 풍남문과 현재 복원·재창조 중인 전라감영, 보물 제 583호인 종패지관(객사) 구간을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역사문화의 길로 조성했으며 전라감영 입구인 완산경찰서 벽면에도 전주의 고지도를 담은 벽화를 제작·설치했다.  
나아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의 발길도 걷기 좋은 보행로를 따라 전라감영을 지나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전주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한국 특사단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및 트럼프 미 대통령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정의용 靑 안보실장, 中시진핑 주석과 접견

대북 대화 국면 의견 나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베이징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북한과 미국을 다녀온 정 실장과 대북 대화 국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날 정 실장은 중국 외교사절단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

동을 가졌다. 그는 양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여러 가지 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여 덕분이라고 본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양 위원은 문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과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을 중국에 파견해 관련 사항을 통보토록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이어 양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

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틀간 베이징에 머문 이후 14~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고위 당국자들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뉴시스

## (속보) - 靑 "문 대통령, 시진핑 조기 국민 방한 초청"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사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림식품은 12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하림식품은 기존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이강수 부회장 단독체제로 운영된다.  
하림식품은 NS홀쇼핑의 자회사로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퇴가 김 회장 일가의 일감 불어주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조사 등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김 회장의 사임이 공정위 조사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푸드는 익산에 조성하는 푸드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회사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본격 착공을 한 만큼 김 회장이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사임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등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영림 기자

## 헌정특위 개헌 평행선 지속

여야, 개헌 시기 등 공방

야, 개헌안 발의 중단 요구  
"여소야대 구도에선 통과 어려움"

민주당, 국회 선출보다 추천에 무게

한국당, 대통령제 유지하더라도  
총리 선출권 국회에 이양해야

주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멈출 수 있도록 헌정특위에 대해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헌시기를 양보 받으면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회 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개헌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할테니 대통령에게 기대달라"고 하는 건 권좌라고 본다"라면서도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국무총리 선출권은 국회에 이양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인 대통령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가 과대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선출보다는 국회 추천에 무게를 뒀다.  
김종민 의원은 "내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줘야 대통령제 정부"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로 하여금 국무위원 제정을 하게 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한다면 총리를 선출한 의회가 정부 구성 주도권을 갖고 있어 의회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총리 임명동의 기준을 재직 의원 과반수로 높이거나 여야 동수로 총리 추천위를 구성한 뒤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총리 선출권 (국회 이양), (총리 후보) 국회 추천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내각제적 요소를 넣어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를 만들면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국민 기만이다.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습지